

## 선교의 시작으로부터 신앙의 자유까지의 역사개관

일본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교의 선교는 1549년 예수회회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가고시마 상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프란체스코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회 등의 회원이 바다를 건너 잇따라 방일하여 각지에 교회, 수도원, 학교, 병원등을 설립하고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였다. 당시의 영주나 다이묘(대규모 영주) 중에는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 후 교회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1614년의 통계에 의하면 성직자 150명, 신도수는 65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당시의 신도에는 상급귀족 2가문 및 다이묘 55명이 있었다.

1582년에는 덴쇼(天正)소년사절이 유럽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세미나리오나 포레지오가 설립되었고 키리시탄에 관련된 인쇄술이 발전하는 등 교회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금교령이 내려져 박해가 시작되었고 1597년에는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신도, 수도자, 사제가 순교하였다. 이후 도쿠가와 막부가 정권을 잡자 박해는 더욱 심해져서 많은 신도가 추방, 사형등의 극형에 처해졌다. 그 후 일본은 해외와의 교류의 문을 닫는 쇄국을 하게 되고 그로인해 그리스도교는 긴 잠복기에 들어갔다.

1857년 쇄국령이 해제되자 외국인의 사목을 위해 요코하마 등지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파외국선교회의 프리장사제가 나가사키에 부임해 1865년 나가사키에 오우라 천주당이 세워지고, 나가사키의 우라가미에서는 옛 신자의 자손들이 발견됨으로서 일본의 가톨릭은 다시 부흥하는 계기가 됐다.

그 후, 1889년에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면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많은 선교사가 방일하고 각지에 교회나 사립학교, 병원 등이 세워지면서 다시 그리스도교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아 또다시 고난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1945년의 패전후에 일본국헌법이 발표되면서 드디어 진실한 의미에서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현재의 신도수는 428, 748명 (2020년)이며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등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신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도 다문화공존에 의한 활력이 기대된다.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웹사이트 참조)

## 주된 사건

- 1549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가고시마에게 상륙
- 1563 오무라 스미타다가 영주로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음
- 1582 덴쇼 유럽파견사절(4명의 소년)이 유럽으로 출발
- 1585 소년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 알현
- 1587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발표하여 선교사를 일본에서 추방함. 키리시탄 다이묘(대규모 영주)인 다카야마 우콘이 영지와 지위를 잃음
- 1597 26명의 키리시탄(신도, 수도자, 사제)이 나가사키 니시자카에서 순교
- 1613 도쿠가와 막부 전국에 그리스도교 금지령 실시
- 1614 다카야마 우콘 필리핀으로 추방됨  
교토, 나가사키의 모든 교회성당이 파괴됨
- 1619 교토 대 순교
- 1622 55명의 키리시탄(선교사, 신도)이 나가사키에서 순교(겐나(元和)의 대 순교)
- 1623 에도 대 순교
- 1627,1628/1629 성화상 그림 밝기가 행하여짐(강제로 성화상을 밝게 함)
- 1633-37 나가사키에서 사제 등이 순교
- 1637 시마바라 봉기(-1638)
- 1856,1857/1858 나가사키 부교(행정장관) 성화상 그림 밝기 폐지시킴
- 1862 26명의 순교자가 로마에서 성인품에 오름
- 1865 나가사키 오우라 천주당 완성. 잠복 키리시탄의 자손들이 프리장신부를 만나 신앙고백.
- 1867 205명의 일본의 순교자가 로마에서 복자품에 오름  
나가사키에서 대규모 잠복 키리시탄이 적발됨
- 1868 메이지 정부는 그리스도교 금교령을 계승  
114명의 나가사키 우라가미의 신도가 유배됨
- 1870 3000명 이상의 나가사키 우라가미의 신도가 유배됨(-1873)
- 1873 제외국으로부터의 항의로 인해 그리스도교 금지의  
계시판이 철폐되고 그리스도교 금교정책에 중지부가  
적혀짐
- 1889 대일본제국헌법으로 인해 일본국내에서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됨
- 1945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됨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해 종전을 맞는다
- 1947 일본국헌법이 시행되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됨
- 1981 교황의 첫 일본방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도쿄, 히로시마,  
나가사키 방문
- 1987 성 토마스 니시와 15순교자가 성인품에 오름
- 2008 베드로 기베와 187순교자가 복자품에 오름
- 2017 유스토 다카야마 우콘이 복자품에 오름
- 2019 프란치스코 교황 일본방문. 나가사키, 히로시마, 도쿄 방문

(SANTA MARIA WAS THERE! DVD해설 참조)

## 일본의 가톨릭교회 -그 역사와 현재-



오우라 천주당(나가사키)

# 현재의 교회와 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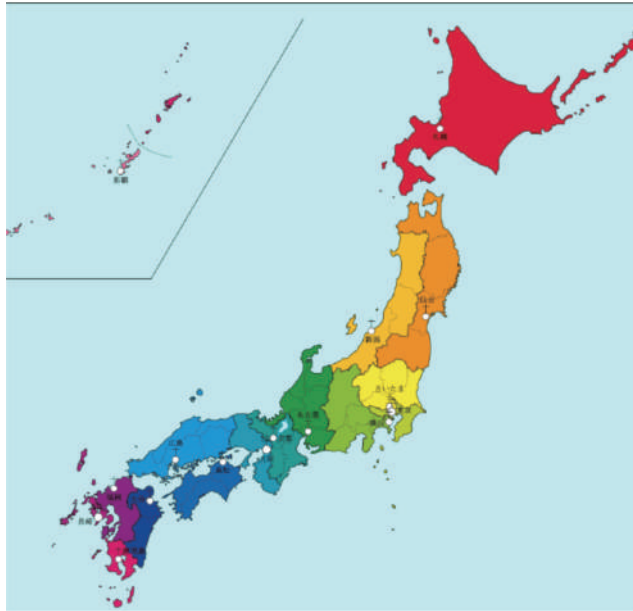


**아루페 난민 센터**  
(NPO법인)  
예수회수도원을 활동 거점으로  
난민 쉼터를 제공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시나피스**  
오사카교구 사회복지부문사무국  
난민, 어린이의 지원

# 일본의 16 교구



- 삿포로 교구
- 센다이 교구
- 니가타 교구
- 사이타마 교구
- 도쿄 대교구
- 요코하마 교구
- 나고야 교구
- 교토 교구
- 오사카 대교구
- 히로시마 교구
- 다카마쓰 교구
- 후쿠오카 교구
- 나가사키 대교구
- 오이타 교구
- 가고시마 교구
- 나하 교구

## 2020년 현재의 통계

신도수	428,748
교회수	960
수도원	713
가톨릭 교육 시설	835



**카리타스 미나미소마**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지원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연대해서 활동하는  
**일한 가톨릭 탈핵 그룹**



**예수회 시모노세키 노동교육센터**  
어린이와 모두의 식당, 외국인,  
조선학교 지원 등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